

삼성전자, 2009년 LCD 투자 축소

생산량 계절적 조절 돌입 ... 200mm 웨이퍼 라인은 시스템LSI에 활용

삼성전자 이상완 LCD총괄 사장은 2009년 투자 계획에 대해 2008년보다는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완 사장은 고양 KITEX에서 열린 한국전자전 개막행사에서 “전체적인 시황에 따라 긴축적으로 갈 것”이라며 2009년 시황에 대해 “1/4분기까지는 단기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다.

LCD 공급과잉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생산량 조절에 돌입했다”면서 “시황에 따라 계절적으로 조절하고 있는데 현재 5%선에서 왔다갔다한다”고 말했다.

또 “인위적 감산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시장상황에 따라 12월에 물량 조절폭이 커질 수 있으며, 2009년 1/4분기 상황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권오현 사장은 2009년 투자 계획에 대해 “시장리더십을 이어갈 수 있는 투자는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직 2009년 계획을 안 세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업계가 200mm 웨이퍼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삼성은 시스템LSI가 있다”고 말해 200mm 생산라인을 시스템LSI쪽에 활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하이닉스 반도체 김종갑 사장은 2009년 반도체 시황에 대해 “공급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요는 잘 모르겠다”며 “얼마 전 기업설명회에서 2009년 투자를 1조-2조원 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현금창출성 범위에서만 투자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0/14>